

2012-2학기
가을 현지조사 자료집
10.3(수)-10.6(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목차

1. 필드 소개

- 1) 시화호 소개
- 2) 송산면 소개
- 3)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소개

2. 전체 일정 및 규율

- 1) 일정표
- 2) 규율 및 유의사항

3. 조별 소개

- 1) 조별 명단
- 2) 조별 소개
 - 마산포
 - 형도
 - 어섬
 - 지화리



* 별첨 - 마을버스 시간표, 시화호 연혁

1. 필드 소개

1) 시화호 소개

경기도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에 걸쳐있는 인공 호수이다. 서울에서 서남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인천, 수원, 안양의 도시가 인접하고 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화지구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4월부터 1994년 1월 24일까지 6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시화방조제를 완공하면서 조성된 인공호수이다.

원래는 시화방조제를 건설하고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淡水湖)로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개발사업주체의 의도와는 달리 방조제 공사 이후부터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를 야기시켰다. 더욱이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지 3년도 못 되어 이른바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게 되었고, 개발 당시의 담수호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 정부는 시화호의 담수화를 사실상 포기하였고, 같은 해 12월 농림부도 시화호 물을 농업용수로 쓰지 않겠다는 방침을 환경부에 공식 전달 하였다. 2000년 2월에는 해양수산부 역시 시화호 및 인천 연안을 특별 관리 해역 시범해역으로 지정하였고, 정부는 2001년 2월 공식적으로 해수호로 인정하였다.

- 시화호 관리위원회 사무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454 한국해양연구원 4108호
- 대표전화: 031)400-6169



2) 송산면 소개



송산면은 경기도 화성시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총면적 53.63(km²)의 면이다. 시화호가 송산면의 위쪽과 서쪽에 잇닿아 있다. 시화호가 매립됨으로써 송산면 관할이던 어섬 · 형도 · 음섬 3개 섬도 육지로 변해버렸다. 송산면은 15개 법정리와 28개 행정리를 관할한다.

<2012.7월 기준 법정동별 인구현황>

행정동명	세대수	총인구수	남자	여자
송산면	4,981	11,255(100)	5,890	5,365
사강리	1,303	3,080(27)	1,567	1,513
고포리	351	795(7)	425	370
지화리	195	423(4)	216	207

<송산면 가구 현황>

계	농가	어가	비농가
4,622	1,721	-	2,901

- 행정관청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매봉산길 12
- 대표전화 031-369-2761~7

<기타 연락처>

송산면사무소	여인길	삼촌리	203-5	369-3761
송산농협	홍사덕	사강리	606-1	357-1787
수협사강지점	박상두	사강리	631-4	357-7212
주민자치위원회	남기철	마산리	541	357-0532
이장단협의회	신언철	중송리	422	
새마을지도자회	박승권	고정리	567	
새마을부녀회	안옥화	고포리	698	357-2022

한국 4-H연맹 이명근 독지리 222 357-1646

농촌지도사회 차진호 용포리 72-2

3) 책<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소개

-시화호, 사기꾼 없는 거대한 사기

시화호 조성사업의 결과 주민들은 당초의 새로운 삶에 대한 부푼 기대와는 달리, 호수 조성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게 되었으며 너무나 급격한 삶의 방식의 변화로 인해 생계전환에도 거듭 실패하는 막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마치 사기극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의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국의 발전과 국토의 개발은 지상의 과제였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일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였다. 간척사업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고 중동 건설 붐이 사라진 시점에서 남아도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사업을 결정한 고위 공무원들이나 사업을 시행한 수자원 공사의 간부들이나 모두들 조국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나 갯벌의 가치는 무시되었지만 누구도 고의로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피해를 안겨주려 의도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정의 결과로, 삶의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즉,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삶에 극심한 변화를 겪어야 할 대상으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조차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활의 터전을 빼앗겼다. 그나마 상당한 금액의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도 과거의 생계유지 방법을 대신할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전환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외부 세계와의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민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의 의의와 방법, 한계

이 연구는 향후 대규모의 인위적 환경변화가 일어날 경우 그 사회문화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과 이론의 개발이라는 학술적 목적 외에 환경운동에 기여한다는 실천적 목적을 함께 가지고 추진하였다. 연구자들은 문화인류학의 현지조사방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한 물리적인 환경 변화가 현지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주민들의 총체적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상세히 기록하고 변화의 물질적, 상징적 의미를 주민들의 시각에서 이해하려 노력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으로는 고포 1리(마산포), 지화 2리, 독지 3리(형도) 및 고포 4리(어도)를 선정하였다. 마산포는 포도 재배를 통하여, 지화 2리는 영지버섯 재배를 통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어도와 형도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의 2개 지역의 적극적인 적

응 노력과 대조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시화 지구에 대한 간척 사업은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일이었으나 구체적으로 사업이 결정되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의 기간은 매우 짧았다. 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주체인 수자원공사조차 개발사업의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할 정도이니, 이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주민들로서 이는 일종의 재난에 해당되는 사건이었다. 시화 방조제 조성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의한 환경파괴는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권력의 중심에서 결정되어 시작되며 주민들은 사태의 진전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발언권도 없지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으며 또한 거의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천천히 진행되는 재난(slow disaster, creeping disaster)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난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속화하기도 하며 한편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피해와 고통을 주고 또한 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고통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재난의 피해와 고통은 계층, 지역, 성별, 연령, 직업, 인종 등에 따라 대단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환경파괴를 재난의 하나로 파악 하고 첫째, ‘재난’(방파제 조성 및 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설명과 의미부여 는 어떠한가. 둘째, ‘이러한 환경파괴로 인하여 주민들의 가치나 태도에 변화가 있는가? 이러한 변화는 사회관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비교적 주변적 위치의 사람들의 경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셋째, 이러한 변화가 주민들 간에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가? 공동체가 크게 악화되거나 파괴되었는가? 사회적 유대가 파괴되거나 해체되고 있는가? 정보의 흐름이나 해석과 관련하여 의심, 불안, 갈등이 만연되는가? 지역내 계층 문제 등이 표면화 되고 있는가?, 넷째, 지역 주민들의 자아정체성 상징의 파괴가 일어났는가? 공식적인 모임의 장소나 비공식적인 장소 등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나 물건들의 상실이 있는가? 문화적 전통에 대한 새로운 강조나 개발이 있는가? 과거와의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섯째, 자신감의 상실이나 의존적 태도가 등장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시화호 사업이후 주민들의 삶을 포괄하고자 했으며 큰 연구주제 외에 이 사업을 전후한 지역주민들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각종 정치조직 및 인구 진출 및 감소 내용, 생계와 관련된 대응, 종교, 신앙, 의례 생활, 주민들의 생애사 수집 및 해석 등 현주민의 삶의 각 측면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고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현주민들의 환경 이용방법이나 환경에 대한 관념에 대한 정보 수집은 주로 과거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보는 상당히 선택적이며 또 상당히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조사자들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같이 환경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독특한 관념에 대한 자료는 만족할 정도로 입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주민들 역시 오랜 동안 정부의 경제성장 및 개발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내면화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커다란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즉, 주민들로서는 바다나 갯벌이 그렇게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과거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이 상당히 미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2. 전체 일정 및 규율

1) 전체 일정표

	10/3(수)	10/4(목)	10/5(금)	10/6(토)
8시	집합 (독수리 상)		조별 조사	기상 및 정리
9시	출발 / 이동			조별 발표 / 마무리
11시	도착			점심식사
12~1시	/ 각 숙소로 이동			
1~3시	조별 조사	조별 조사	백악관 펜션 집합* / 조별 모임	이동 / 도착
6~8시			저녁식사	
8시~			조별 스터디 / 발표 준비	

*백악관 펜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828-8

(자세한 위치는 어섬 조 지도 참고)

문의: 010-9533-8288

031-357-1803

전체가 동시에 마을버스로 펜션 집합 시 혼선이 우려되니 조별로 사전에 논의하여 시간조정 하세요.

마산포 종점인 시간에 타도 기사님께 말씀드리면 어섬까지 들어가 주십니다.

2) 규율 및 유의사항

○ 행동 규율

- 현지조사에 필요한 음주 외 일정에 영향을 주거나 조 분위기를 해하는 음주 행위는 금지합니다.

- 필드웍 일정표에 따르지 않고 개인행동을 할 경우, 조장의 동의 없이 조모임 불참, 조 이탈의 경우 필드에서 떠나야 하며, 필드웍 불참으로 처리됩니다.

○ 유의사항

- 지나치게 짧거나 딱 붙는 옷, 튀는 색상의 옷은 삼가주세요.(연잠X)

- 마을 분들 보시기에 무례한 행동은 삼가주세요. ex) 어르신 보는 앞에서 담배피기

- 마을 분들은 일찍 주무십니다. 숙소 안에서도 늦은 시간에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맙시다.

3. 조별 소개

1) 조별 명단

	조장	부조장	조원	조장 연락처
1	강나리 (마산포)	허진우	이수빈 임태령 허아람 사토히로미 박재순 최영조	010-4764-9305
2	나아람 (어섬)	김강희	이윤영 김형선 나한엘 이지은 이도현 김혜연	010-4048-2997
3	배근주	김선형	유상경 이유정 나효정 이연성	010-6326-6826

	(어섬)			
4	성지수 (지화2리)	김조은	박진우 김다훤 신한솔 정근혜 조명희 이종혁 이종민	010-5243-7600
6	이서우 (형도)	김지원	김지영 고명희 이보미 명준성	010-4760-7708
7	조윤지 (지화2리)	양희주	구가은 김용성 이한솔 김신영 이진영 김승원 양현식	010-7474-3536
8	최서연 (마산포)	이효은	김나영 박일배 한유경 이혜원 윤다예 정지윤	010-7422-6066

<비상연락망>

김현미 교수님 010-3324-8862

조한혜정 교수님 010-7440-2425

조문영 교수님 010-3712-8437

회장 이지은 010-9434-5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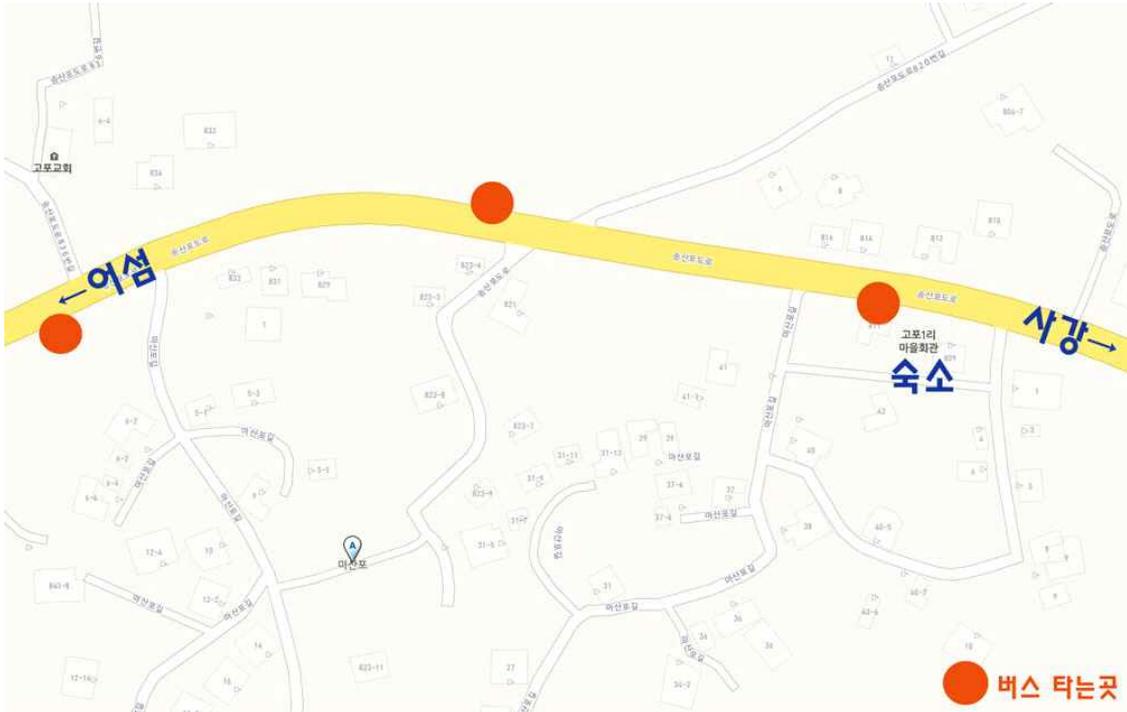
필추위 대표 김조은 010-4109-4380

필추위 대표 조윤지 010-7474-3536

<조별 현지조사 지역>



◎ 마산포



	10/3 (수)	10/4 (목)	10/5 (금)
7	집합 및 출발	아침식사 & 준비	아침식사 & 준비
8			
9	이동	분조별 키 인포먼트 중심 인터뷰 및 참여관찰	분조별 키 인포먼트 중심 인터뷰 및 참여관찰
10			
11			
12	도착 및 점심식사	분조별 키 인포먼트 중심 인터뷰 및 참여관찰	어섬 이동 조사 내용 공유 & 발표 준비
13	현지 맵핑 & 분조별 참여관찰		
14			
15			
16			
17	저녁식사		
18			
19	조사 내용 공유 &조모임	조사 내용 공유 &조모임	조사 내용 공유 & 발표 준비
20			
21			
22			

▶ 나리네 (1조)

1. 연구 주제

- 1) 연구 지역: 화성시 송산면 고포 1리
- 2) 연구 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3,40대 청장년층
- 3) 연구 배경

4·50대도 ‘젊은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청장년 세대가 적은 농촌 현실에서, 마을을 떠나지 않고 혹은 마을에 새로 들어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젊은 세대의 생업, 가족, 농촌 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약 15년 전만 해도 어업이 주를 이루었던 마산포의 역사와 연결하여, 당시 2·30대였던 현재의 3·40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통해 어업을 주로 하다가 농업으로 생업을 전환한 부모 세대와 현재 농업을 주요 생업으로 삼고 있는 자기 세대 간의 변화, 차이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추측해본다. 결론적으로 3·40대가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꾸려나가고 싶은 그들 자신 및 마을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2. 필드 설명

1) 고포 1리(마산포)

고포리는 2012년 기준 총 세대 수 351가구, 총 인구 수 795(남425, 여370)명이 있는 마을로 고포1리, 고포2리, 고포3리, 고포4리로 나누어진다. 마산포는 행정구역상 화성시 송산면 고포1리, 고포2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남양[면]에서 사강을 거쳐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은 간척 사업의 결과로 마을 주위에 보이는 것이 평야뿐이지만, 과거에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마산포라는 이름 역시 과거 이 지역에 존재하던 포구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한다. 마산포 지역은 바다와 가장 인접해있던 만큼 간척 이전에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따라서 간척으로 인한 생업과 마을 전반의 변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컸던 곳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2)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에서

고포리 지역은 예전부터 ‘효자동네’라는 언급이 있을 정도로 인근의 다른 마을에 비해 젊은이가 많이 사는 곳이었다. 그 이유에는 물론 마을 자체의 규모가 큰 탓도 있었지만, ‘황금어장’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바다 자원에서 어업을 통해 얻는 이득이 꽤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고 수산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마을 주민들의 수가 급히 줄었다. 그에 따라 마을의 기쁜 일, 슬픈 일에 주축이 되어 일했던 청장년회의 활동이나 각종 마을 행사도 줄었고 여느 시골 마을과 같이 활력을 잃은 모습이 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포리 지역 청장년들의 활동은 근근이 이어져 왔는데, 1996~7년에 있었던 포도 피해에 대한 보상 시위가 바로 그것이다. 간척으로 인한 환경 변

화에 의해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자 고포리 주민들은 정부와 보상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보다 강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앞장서 나가자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마을에 남아있던 젊은 층이었다.

3) 왜 마산포인가

고령 인구가 많은 시골 마을에서 3·40대의 젊은 층은 비록 수는 적을 지라도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다수의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는 시골 마을에서 곳곳이 자리를 지키며 마을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간’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일과 그 변화 양상에 조사하는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가장 긴 범위로 연결할 수 있는 노년층의 이야기에 주로 관심이 쏠린다. 물론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역사적 연구에서는 마을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노년층의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마을의 주 활동층이 될 3·40대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가 노년층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지내온 15년의 역사를 그렸다면, 우리는 연구 상 주목 받지 못했던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이어질 마을의 앞날을 그려보고자 한다.

3. 연구 방향

마산포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진다. 첫 번째, 간척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청년 시기를 보내온 마을 내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들이 기억하는 마을의 과거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마을의 미래를 그려본다. 두 번째,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서 젊은 인구가 점차 빠져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산포의 3,40대가 현재 이 마을에 정착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경우 이들이 보내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여 가족, 농업, 세대 등을 키워드로 질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4. 연구 방법

최소 3명 이상의 인터뷰이를 확보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인터뷰이별로 2~3명 정도의 조원을 각각 배정하여 한 인터뷰이를 여러 번 찾아가 라포를 쌓으며 보다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예상 질문의 큰 주제는 ‘외지에 나갔다 온 경험의 유무’, ‘간척 사업에 대한 기억’, ‘20대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 ‘성 역할은 어떠한지’ 등으로 나누어지며, 각 갈래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질문지를 구성하고 있다.

▶ 서연이네 (8조)

- 연구주제: 마산포 주민들의 삶의 변화

- 필드 소개

고포 1리는 마산포라고도 하는데, 원래 매립을 하기 전에 바로 바다와 면해서 있던 마을이기 때문이다. 바다에 면해있으므로 당시의 마을 경제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업이었다. 굴이나 맛, 조개, 낙지 등을 채취하는 것은 주민 대부분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그 외에도 일부 배를 가진 사람들은 멀리 배를 타고 나갔고 마을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어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적었기 때문에 비중이 낮았다.

원래 살던 주민들은 최씨들과 그 친인척들이고 한국전쟁 후 이북에서 원래 갯일을 하던 피난민들이 와서 정착했다. 그렇게 주민들이 많아지고 갯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해지면서 어촌계가 조직되었다. 어촌계는 마을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바다에서 굴 양식을 하는데 그것을 채취하는 조업 인원수를 어촌계가 제한했기 때문이다.

갯일은 고된 일이지만 노동력만 있으면 누구나 많은 돈은 벌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고 마을 구성원들 간 동질성이 컸다. 그리고 자주 어촌계를 통해 모이게 되어서 단체 활동도 활발했다고 한다.

그러나 1987년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어장이 못쓰게 되자, 마을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던 어업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어업이 불가능해지자 마을 주민들은 사강의 횃집 등 다른 지역에서 일하거나 갖고 있던 땅을 이용한 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여의치 않은 주민들은 인천, 안산, 서울 등의 외부로 나가게 된다.

어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지금, 고포 1리를 비롯한 시화호 일대는 주로 포도를 기르고 있다. 가장 처음 포도를 들여온 것은 고포 1리의 주민이었다. 포도를 심게 되면서, 유명무실해진 어촌계 대신 1992년 포도작목반을 조직하게 되는데 주민들에 말에 따르면 과거 마을 중심점이었던 어촌계와는 다르게 포도작목반은 마을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고포리	세대수	총인구수	남자	여자	세대수 증감	인구수 증감
2004	327	816	437	379		
2005	330	830	441	389	3	14
2006	333	805	433	372	3	-25
2007	339	817	425	392	6	12
2008	343	836	445	391	4	19
2009	354	835	444	391	11	-1
2010	352	834	450	384	-2	-1
2011	356	841	458	383	4	7
2012	351	795	425	370	-5	-46

고포리 인구 및 세대수 현황

1)조원 및 분조

조장	1분조	2분조	3분조
최서연	박일배(분조장) 윤다예 김나영	이효은(분조장, 부조장) 이혜원	한유경(분조장)정 지윤

2)연구목적

이번 현지 조사는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그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필드인 고포 1리(마산포)는 원래 어촌이었으나 1987년 물막이 공사로 물일과 갯일이 불가능해지면서 포도 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촌으로 변화했다. 현재는 '송산 포도'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졌을 정도로 포도 농사가 성공적인 지역이다. 도시에 비해서 농어촌 지역은 변화가 거의 없는 곳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지만, 시화호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업에 직결되는 큰 변화가 있었으므로 주민들의 삶도 많이 바뀌었을 것을 전제로 연구를 시작한다.

결국 연구의 목적은 국가적 토목정책으로 삶의 터전이 바뀐 지 근 30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적응하여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일반적인 농촌과는 달리, 고포리는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세대가 본격적으로 농사를 처음 시작한 세대이므로 그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계획 같은 앞으로의 국가적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삶을 꾸려나갈 것인지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3)연구내용

거의 모든 고포 1리 주민들은 포도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기에 주민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할 때에는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포도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미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에 있는 부분이므로 97년 소금 피해 부분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피해 보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송산 포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본다. 지금까지 연락이 된 연구 참여자가 모두 포도 농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사전조사에서 알게 된, 포도 농사를 위해 포도 작목반이 활동한다는 점, 농번기에는 외부에서 일손을 들여온다는 점, 8월 포도축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 직접 일손을 도와드리며 참여 관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 농사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한 논농사 등 작물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도 살펴 볼 예정이다.

참여관찰보다 인터뷰가 중심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답사에서 마을을 떠난 사람 뿐 아니라 마을로 들어온 사람 혹은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들의 이주 동기가 마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면 인터뷰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고포 1리는 송산그린시티 토취장으로 지정되었다가 송산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이

취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인터뷰를 통해 들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들을 교차시켜서, 외부에서 이주해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포도 작목반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토취장으로 지정되었던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으로 질문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확정된 연구 참여자는 마을 내에서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다양한 주민들의 삶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키 인포먼트들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키인포먼트

고포 1리 이장님 (최병옥)

011-323-5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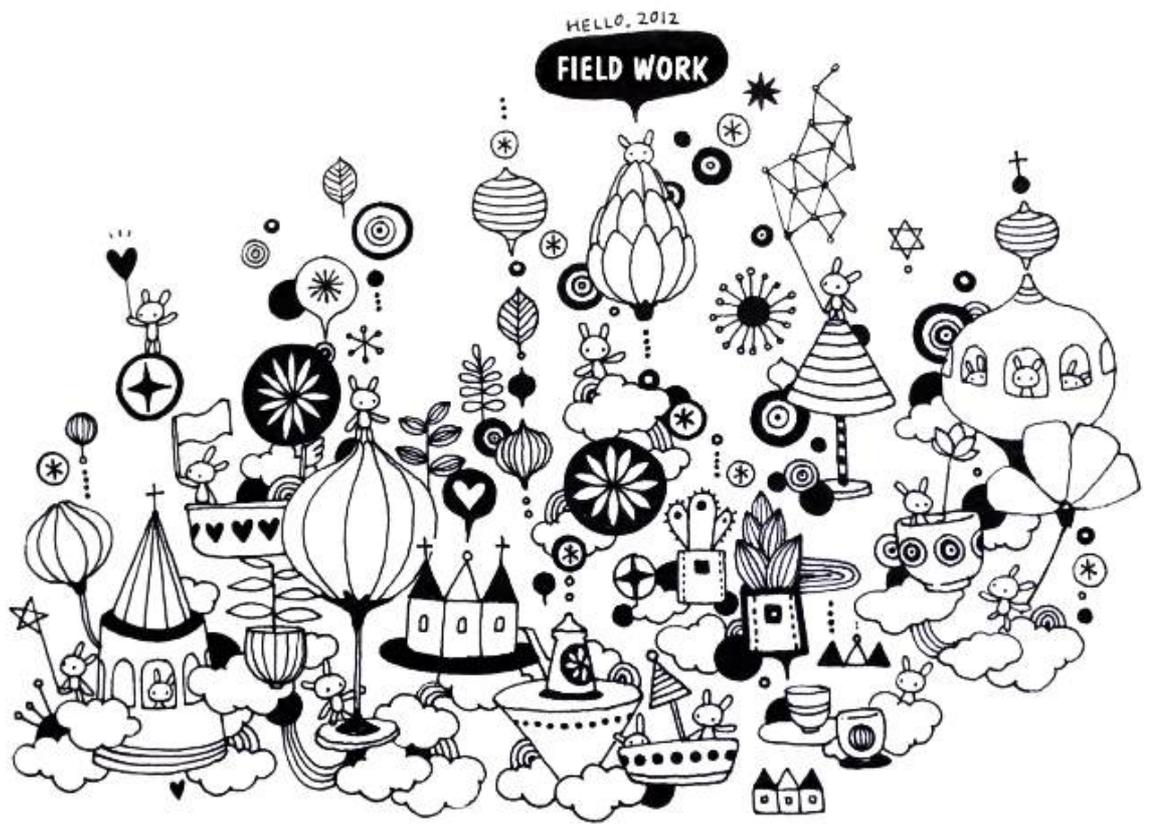
포도작목반장(박윤호)

010-3704-2309

고포 1리 전 이장님 (최규은)

처음 포도 농사 시작한 분 (최병준)

011-766-1884



◎ 형도

▶ 서우네 (6조)

1. 필드 설명

1) 형도는 어떤 곳인가?

- 형도는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독지 3리에 속한다.
- 6.25 이전에는 봉화대가 있어 군사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으며, 6.25 이후에 이북에서 피난을 온 피난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어부들이 바닷물이 얼마나 들어왔나를 알아보는 기준이 되는 섬이라고 하여 저울섬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생업은 전적으로 어업에 의존했으나, 시화호 간척 이후 생업에 타격을 받아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과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 주어진 지도에서 D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마을 이장님 댁 위치이다. 이장님 댁은 마을 주민들 모두가 위치를 알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 마을 내 “직책”(어촌계장님, 생계조합장님, 계장님 등)을 가진 분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이장님 집 앞쪽에는 전 이장님이 거주하고 계신다.
- 주어진 지도에서 E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형도 교회로, 지금은 신도가 6~7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교회이다. 주일마다 한 번씩 외부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미사를 진행하신다. 형도 교회 뒤쪽에는 지금은 폐교된 마산포초등학교 형도 분교가 자리잡고 있다.
- 형도에 존재하는 마을은 위 지도에 나타난 마을 하나로, 현재는 약 30~4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 인구는 78가구이며, 인구수는 146(남81/여65)명이나, 실거주자

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형도 뒤쪽에는 채석장이 있어 주로 인부들이 다니는 곳이다.

2)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에서

- 시화호 간척 사업 이후, 형도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변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에 따르면, 시화호 간척사업 이후 형도 주민들의 모습은 대체 생계 양식으로의 전환에 실패, 마을 주민의 노령화, 이주 주민들의 도시 주변인화, 보상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 마을 공동체의 약화로 요약될 수 있다.

3) 현재 상황

- 현재 형도의 모습은 형도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산인 계명산의 채석장화로 인해 산의 중심 부근이 끊어진 듯한 모양을 하며, 흙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이주 요구와 보상 문제와 맞물려 지금은 소수의 주민들만이 아직 형도의 터를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다.

- 현재 형도 "아래쪽"의 물은 많이 정화되어 2급수에 가까워지고 있다. 따라서 가을이 되면 꽃게나 전어 등을 잡으러 나가기도 한다.

- 이들은 결국 "나가야 할 사람들"이며, 주민들 스스로도 그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형도에 더 이상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화장실이나 인터넷 같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오랜 기간의 싸움에 지쳐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형도 이주대책위원회>의 경우 건립 초반 2년 정도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약 4년 전부터 활동이 뜸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4) 왜 '형도'인가?

- 형도는 '섬'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관련하여 필드로 선정될 수 있다. 먼저 형도는 원래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라 피난민이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삶의 터전이 된 곳이다. 이는 곧 한 섬에 모여서 새롭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이주 해 온 배경이 상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같은 섬이었던 어도에서 간척 사업 이후 포도 농사로의 전환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형도의 주민들은 생계 수단이 전적으로 어업뿐이었다. 따라서 시화호 간척 사업에 의한 타격이 그 누구보다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정부로부터 '이주'의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생계 수단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터전까지 송두리째 뺏길 위험에 처한 형도 주민들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1) 구술 생애사 연구란 무엇인가?

- 구술 생애사 연구란 인류학의 연구 방법 중 생애사(life history) 연구를 대상자(이야기꾼, story-teller)와의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방법이다.

2) 왜 '구술 생애사'인가?

- 구술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어떻게 객관적 구조와 상호 연관되어있는지를 보여준다. 개인의 삶은 바로 그 개인이 위치하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것이다.

3.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형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개인의 삶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화호 개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개인의 대처 방안과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장소”란 “공간”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간이 특정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인 개념이라면, 장소는 구성원들의 인식이 녹아 있는 문화적인 맥락의 개념이다. 즉 공간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것이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소성”의 개념에 대해 공부하고, 형도 주민들에게 형도라는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장소화”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형도의 주민들은 형도에서 나고 자라거나 피난의 과정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형도는 주민들에게 고향이기도 하고,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준 섬이기도 하며, 자신의 생활 터전이자, 유년 시절의 기억이 그대로 녹아있는 곳이다. 따라서 형도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나 애착은 상당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형도 주민들이 형도에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를 대주체로 하여, 기존의 연구 질문들을 함께 끌어내갈 것이다.

- 첫 번째는 한 개인이 개발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다. 생의 어느 단계에서 재개발을 경험하였는가는 이들이 지역사회를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새로운 곳으로 들어갈 것인가, 나갈 것인가와 같은 주요한 선택을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¹⁾ 특히 노인들의 경우 동일 지역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로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를 떠나야 하는 상황은 정체성의 혼란이나 강한 상실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시화호 개발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떠한가? 전반적인 삶의 맥락에서, 이 사건은 개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유의미한가? 또한 이를 어떠한 태도로 연구자들에게 구술하는가?

- 두 번째는 이주의 요구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형도라는 장소에 대한 애정과 현실적인 “돈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충돌하는 가를 알아볼 것이다. 장소에 대한 애착이 큰 노

1) 생애 과정 관점에서 본 난곡 재개발 지역 노인들의 삶, 주지현, 2012, p.108

인들의 경우, 오래 산 지역 사회의 물리적 향상이 개인의 환금 가능한 이익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허탈감이 크다.²⁾ 그렇다면 남들과는 다른 강한 애착이 보상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이어지는가? 혹은 감정적인 이유와는 관련 없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만 입각해 보상을 바라보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문화인류학의 방법론인 구술사와 생애사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개인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물론, 그들의 삶을 공감하려는 노력과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을 키워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접근하여 연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관계가 연구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타인의 삶을 조망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통해 연구자가 스스로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조원 및 분조 소개

분조	조원	인터뷰이(예상)
A조	11이서우(조장, 분조장), 10이보미, 12명준성	어촌계장님 or 형도조합장님
B조	11김지원(부조장, 분조장), 09김지영, 10고명희	이장님 어머니

5. 필드에서의 일정

날짜	10/3/수	10/4/목	10/5금	
6시		기상 및 아침 식사	기상 및 아침 식사	
7시				
8시				
9시	집합, 출발	회의	형도 현지조사 (3차 생애사 인터뷰)	
10시	점심 식사 후 이동	점심 식사 후 이동		
11시				
12시	형도 현지조사 (1차 생애사 인터뷰)	형도 현지조사 (2차 생애사 인터뷰)		점심 식사, 분조 회의 및
1시				
(오후)				
2시				
3시				
4시				
5시				
6시	추가 인터뷰			
7시	어섬으로 이동 및 저녁			

2) 생애 과정 관점에서 본 난곡 재개발 지역 노인들의 삶, 주지현, 2012, p.222

8시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최종 회의
9시	분조 및 조별 회의	분조 및 조별 회의	
10시			
11시			
12시	취침	취침	취침

- 현실적인 여건에 의하여 마산포에서 1조, 8조와 함께 고포리 마을 회관에서 숙소를 사용한다.
- 3일과 4일의 경우 형도로 들어갈 때는 오전 11:50분 사강 터미널 발 버스를 이용하고, 나올 때에는 오후 5:50분 형도발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5일의 경우 아침 6:55분 사강 터미널 발 버스를 이용하고, 나올 때에는 오후 12:20분 형도발 버스를 이용한다.
- 3일과 4일의 경우 마산포에서 사강 터미널로 이동시 마산포에서 오전 10:5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며, 다시 들어가는 버스는 6:30이나 7:30분 사강터미널 발 버스를 이용한다. 5일의 경우 마산포에서 사강 터미널로 이동시 콜택시 등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할 계획이다.



◎ 어섬



▶ 아람이네 (2조)

1. 연구 주제: 고포 4리의 마을 내부 네트워킹을 통해 드러나는 관광과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2. 연구 대상: 시화호 간척 사업 이후, 고포 4리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

3. 연구 배경

현재 관광/레저 단지로 유명한 ‘어섬’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그들은 관광지에서 관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업으로 포도 농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20년 전 시화호 간척 사업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레저단지로 변해가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과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계획과 현재 고포 4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킹을 통해 그들이 체감하는 관광과 개발은 어떠한지 들어보고자 한다.

4. 필드 설명

1) 책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에서

어섬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이다. 여기서 15년 전의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의 필드는 행정구역상 고포2리에 해당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상 고포 4리의 주민들을 주로 만나본다. 책에 나타난 어섬은 형도와의 비교에 있어 상대적으로 18세기부터 자리 잡은 전주이씨 종친회를 중심으로 마을공동회의와 각종 잔치 등 ‘마을’의 모습이 건재한 곳이었다. 마을에 교인이 3명밖에 없을 정도로 교회는 마을의 중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주권과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 증대에 대해 기대가 컸었다.

2) 어섬 및 고포 4리에 대한 설명

어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로, 전주이씨(全州李氏)가 대종을 이룬다. 섬의 북동쪽에 취락이 발달해 있다. 섬 이름은 예부터 마산포 부근과 더불어 고기가 많은 섬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다. 1960년대에는 마을 전체의 가구 수의 3분의 1이 배를 소유하고 물일을 했을 정도로 마을의 주된 생업은 물일이었는데 70년대부터는 굴 양식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어선업에 비해 굴 양식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마을 내의 소득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시화호 간척 공사 전까지 바지락과 굴 양식장의 넓이는 94ha로 상당히 큰 규모였다.

현재 고포리는 2012년 기준 총 세대 수 351가구, 총 인구 수 795(남425, 여370)명이 있는 마을로 고포1리, 고포2리, 고포3리, 고포4리로 나누어진다. 어섬에 해당하는 고포 4리의 등록된 세대주는 70가구이나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실세대주는 그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고포 4리의 주민 대부분이 포도 농사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더 나은 생

계유지를 위해 물일을 재개하거나 주민자치관광 사업을 진행해보려는 등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3) 왜 어섬인가

어섬은 시화호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관광/레저가 특징적으로 발달한 곳이다. 관광객으로서의 경험밖에 없는 우리는 관광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관광 사업에만 종사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곳에서 현지 주민들의 삶이 단순히 관광지에서 살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삶의 변화 속에 어떻게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한다. 이는 미디어나 다른 여타에 의해서가 아닌 현지의 주민들의 언어로 그들의 삶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 연구 방향 및 방법

사전 스터디를 통해 ‘관광과 개발’을 주제로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6가지의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을 내부 네트워크,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 현지인과 외지인, 마을의 주요 생업, 정부와 자본 그리고 대안>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되 고포 4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할 것으로 예상하여 인터뷰이들은 일정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세세한 질문들을 구성할 것이다. 우리 조의 키 인포먼트인 이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마을 남성 간부 4분, 마을회관에 모이는 아주머니들, 어섬 관광/레저 종사자인 외부인 이렇게 인터뷰이를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마을 남성 간부 4분과는 사전에 미리 연락처를 받아서 인터뷰 날짜를 확정해놓은 상태이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마을 회관으로 주로 놀러오시므로 마을 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분조 하나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 분들을 찾아뵙는 분조 하나로 나누어 필드워크를 진행할 것이다. 어섬 관광/레저 종사자들을 인터뷰할 때에는 영상을 찍게 되는 3조의 분조와 같이 인터뷰를 수행할 계획이다.

6. 연구일정

- 각 간부님들의 성함은 인터뷰이 보호를 위해 기록하지 않았음.

- 분조별 인터뷰

: 마을 회관에서 아주머니들과 인터뷰 /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주민분들과 인터뷰

10월 4일의 한 분조(2명 예정)는 3조 영상팀과 함께 관광/레저 종사자 인터뷰 진행

	10월 3일(수)	10월 4일(목)	10월 5일(금)	10월 6일(토)
10:00		분조별 인터뷰	분조별 인터뷰	발표
11:00				
12:00	점심			점심
13:00	마을 둘러보기 & 뵙는 주민 분들께 인사 드리기	분조별 인터뷰	노인정총무님	
14:00			분조별 인터뷰	

15:00				
16:00				
17:00				
18:00	개발 위원장님	개발위원님	노인회장님	
19:00	저녁			
20:00	조별 스터디			
21:00				

▶ 근주네 (3조)

1) 필드 소개

시화호 주변 지역에서 해안가에 근접해 있는 곳 중에는 레저사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특히 어섬은 송산면 일대의 레저사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레저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어섬에는 11개의 펜션과 14개의 레저사업체가 모여 레저 관광지를 이루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모여 어섬휴양지 레저연합회를 구성한 것은 약 1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연합회장직을 맡고 있는 정영주씨는 어섬의 전도유망한 레저사업을 위해 레저 사업자들을 모아서 연합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편 어섬 내의 인구를 비교해보았을 때 어섬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보다 레저 사업자가 더 많은데, 시화호 사업 관련 보상을 받고 떠난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는 특별한 교류는 없지만 레저연합회에서 연 단위로 여는 축제에는 주민들도 불러서 단합의 장을 만들기도 한다.

2) 연구목적

3박 4일간의 Fieldwork를 통해 어섬의 모습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어섬 레저사업이 생겨나고 발전해온 과정과 현재, 그리고 그 전망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더불어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함으로써 어섬에서의 레저사업에 대한 주민과 사업자 간의 견해를 비교해보고 관광객이 생각하는 어섬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등 필드를 바라보는 다양한 견지를 영상에 담을 계획이다.

3) 연구내용 및 절차

결과물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전 스터디를 통해서 영상에 대한 기획안과 콘티 제작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어섬에서 2개 조로 나뉘어 촬영을 한 후 편집 등의 영상 제작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촬영 시 1개 조는 인물 1명을 중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웨도잉 촬영을 하거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다른 1조는 어섬의 펜션이나 핵심 레저사업 등 주요 장소를 돌아다니며 어섬의 전체적인 전경을 촬영할 계획이다.

- 영상의 구성

* 장르 : 다큐멘터리

* 진행 방식 : 내레이션, 자막, 인터뷰

* 프로그램 RT : 약 15분

- 촬영 장비는 핸디캠, DSLR (필요 시 pd150과 같은 방송용 카메라 대여)

4) 조 구성

조장 : 배근주(08)

부조장 : 김선형(11)

조원 : 이은정(09), 유상경(09), 나효정(12), 이연성(12)

5) 일정표

	10월 3일(수)	10월 4일(목)	10월 5일(금)	10월 6일(토)
10:00		분조별 촬영	분조별 촬영	발표
11:00				
12:00	점심 식사			
13:00	어섬 탐방	심층 인터뷰 또는 쉐도잉 촬영	분조별 촬영	
14:00				
15:00	세부 촬영계획 수립			
16:00	수립			
17:00	분조별 촬영			
18:00				
19:00	저녁 식사			
20:00	조별 스터디			
21:00				



◎ 지화리

<지수네&윤지네 일정표>

날짜	10/3/수	10/4/목	10/5금
5시		새벽예배 참석 (4조)	새벽예배 참석 (7조)
6시			
7시			
		아침준비 (7조)	아침준비 (4조)
		아침식사	아침식사
8시	집합	분조 모임	분조 모임 청소
9시	출발		
10시		인터뷰	인터뷰
11시			
12시	장보기 / 마을진입		
1시 (오후)	마을진입 / 청소	식사 준비 (4조) 점심식사	어도로 출발
2시	Key Informant Contact 마을 둘러보기	인터뷰	어도 도착 / 짐정리
3시			전체토론
4시			조별 토론
5시			
6시	식사 준비 (4조) / 휴식	식사준비 (7조) / 휴식	저녁 식사
7시	저녁 식사	저녁 식사	
8시	수요예배 참석	전체토론	발표준비
9시	전체토론		
10시			
11시			
12시	취침	취침	취침



<지화2리 지도>

<Key Informant 연락처>

화량감리교회 031-357-1556

함영민 목사님 010-5270-7575

자연생태원 미니박스 031-357-8221

노경애 이장님 010-6342-1708

신영주님 (미니박스 공동운영, 에코피플 회장) 010 91278221

▶ 지수네 (4조)

1. 연구 주제: 생업의 변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

2. 연구 대상: 어업(바닷일/갯일)->영지재배->포도, 미작으로의 생업 변화를 겪은 지화2리 거주자, 관광업 등 새로운 생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지화2리 거주자

3. 연구 배경 및 목적

책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 15년간 마을의 변화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생업의 형태 전환(어업->농업)과 작물의 변화(버섯-> 포도, 쌀)의 과정과 추이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생업이 변화할 때 작용했던 여러 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변화를 결심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생업 당사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체성의 변화가 있었는지, 젠더별로 어떻게 다른 삶을 경험하였는지, 생업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한다.

4. 필드 설명

1) 책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에서

지화 2리는 시화호가 생기기 이전부터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생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했던 마을이다. 이에 따라 남성들은 뱃일과 농업을 병행하기도 하기도 하였다. (여성은 갯일 위주) 시화호 건설 이후에는 바닷일과 갯일이 불가능해지면서 영지 재배를 시작하였으나, 염해 피해 때문에 안정적인 생업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책에서는 영지 재배의 대안으로 포도 농사가 도입되려는 시초를 포착, 송산면 다른 마을들처럼 지화 2리에서도 포도농사가 활성화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2) 왜 지화 2리인가

현재 마을의 대부분이 포도 농사를 짓고 있으며, 작년에 논농사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업이 지속되던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용수 문제 등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에는 마을의 젊은 이장님의 주도로 마을 근처 습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마을 수익 사업을 마련하는 길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화2리는 짧은 시간 내에 생업의 변화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안정적인 생업과 생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지화 2리는 생업이 변화할 때 작용했던 여러 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변화를 결심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생업 당사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데 적합한 필드이다.

5. 연구 방향

1) 생업 변화의 구체적인 과정 연구

- 포도농사로 쏠리면서 타 지역과의 경쟁은 없는지
- 어떻게 재배 작물을 결정하는지(상업성?). 작물을 바꾸는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 재배 작물 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자본 동원, 시설 마련했는지
- 생업을 하면서 어떤 도구 사용하고, 그것이 생업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농한기에는 무엇을 하는지
- 생산력, 수입 편차 없는지

2) 개인의 생애주기별 (연령별) 생활의 변화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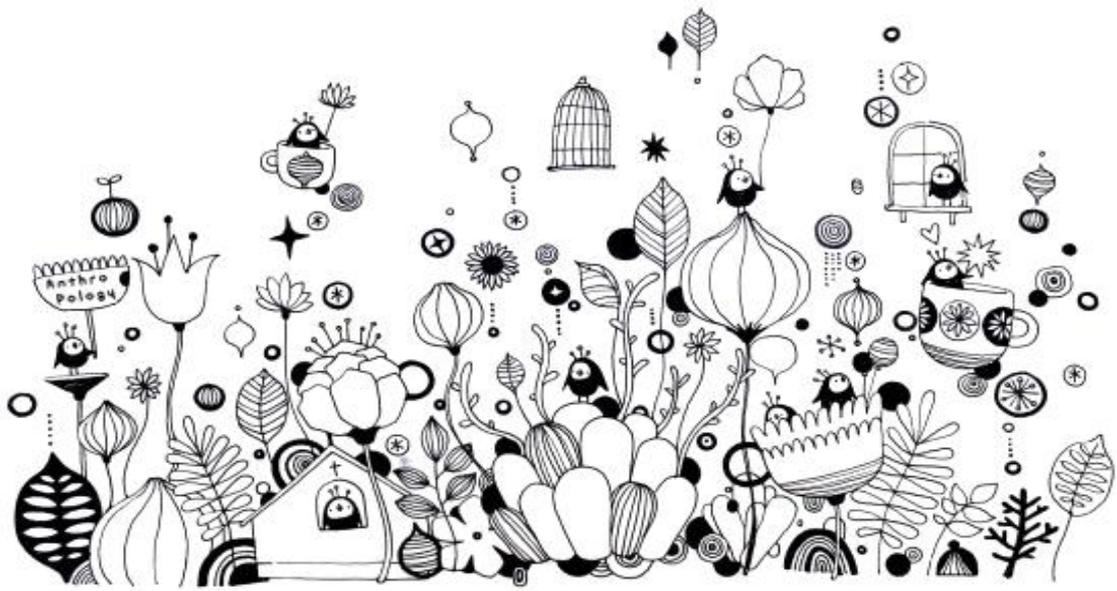
- 생애주기에 따른 생업 변화 (+언제까지 현재의 생업을 지속할 계획인지)
- 지화2리가 고령화 되었는데, 포도농사에 적합하다고 여기는지
-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소농? 생산력이 충분한가?)
- 지화2리의 노동 조달 형태는 어떠한지 (임노동자/가족 노동력)

3) 여성의 생활의 변화 연구

- 포도농사, 미작에는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성별 분업의 형태)
- 보상, 작물 변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갯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생업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정체성 변화

6. 연구 방법

최소 5명 이상의 인포먼트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교회 공동체가 발달한 마을이니만큼, 연구 첫날 수요저녁예배와 새벽예배 2회를 모두 참여하며 라포를 쌓는다. 2명의 조원이 한 인포먼트를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제가 다른 7조와 동행하여 한 인포먼트를 인터뷰하는 것이니만큼 각 인포먼트 별로 4조와 7조의 조원이 균등히 참여하는(각각 2명 예상) 분조를 꾸린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에는 4, 7조 협동 분조가 함께 움직인다.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 결과를 도출할 때에는 다시 원래 조별로 모여 활동한다.



▶ 윤지네 (7조)

연구주제: 공동체 관계

1. 필드소개

지화리는 송산면 끝자락에 위치한 총 200가구 남짓의 4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며 지화2리의 인구구성은 더 적은 편이다. 주민 대부분은 7, 80대 노인이다. 과거 어업에 치중했던 다른 마을들에 비해 농업 병행을 꾸준히 해온 편이다. 하지만 역시 언덕너머의 바다가 간척되어 습지로 변화되며 불편을 겪고 있다. 보상, 땅 분배 등 시화호 문제로 인해 오늘날까지 부수적인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지화2리에 대해 주목할 만한 점은 일제시대 선교로 시작되어 주민의 98%를 신자로 가지고 있는 ‘화량교회’의 존재와, 곤충생태체험 학습장을 운영하며 마을 이장직을 겸하고 있는 30대 중후반의 여성 이장님이다.

2. 책소개

현황정보를 자세하게 분석한 책의 다른 파트와는 달리, 지화2리에 대해 서술한 제4장에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필자가 분석하여 해석한 이론적 논의를 담고 있다. 필자는 시화호 공사로 인해 지화2리의 ‘마을’의 성격이 침식당한 것으로 해석했다.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 내부가 약화되고 타공동체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은 시화호 공사로 인해 ‘환경’마저도 분리된 대상화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화량교회’가 마을 내외부의 갈등을 완화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교회는 마을사람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는 대신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 내부의 공동체들을 약화시켰다는 부정적 해석을 하고 있다.

3. 연구목적

때문에 책 전체를 읽다보면 우리는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주변 마을들도 동일한 보상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화2리만이 필자에게 특히 부정적으로 비춰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필자는 현재 지화2리에서 소멸된 영지버섯 재배 농민을 중심으로 인터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영지버섯 재배농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분석했던 이 기술지는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할까? 이러한 물음을 시작으로, 우리가 필드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1) 책이 쓰일 당시 마을에 살았던 다른 주민들의 생각도 이들과 같았을까?
- 2) 현재 지화2리의 내외부적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들은 스스로의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3) 아직까지도 시화호로 인한 상호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화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들이 있었으며 마을 공동체의 앞날을 그들은 어떻게 예측할까?

4) 오랜 기간 마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화량교회는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교회역사집을 소실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터뷰를 통해 교회 역사를 구술사로 채록할 수 있을까?

4. 조원 역할분담

조장 / 식사: 조윤지

부조장 / 회계: 양희주

서기1: 양현식

서기2: 김승원

행정기록: 이진영

Pt, 보고서 편집: 이한솔

사진: 김신영

설거지: 구가은

청소: 김용성



<마을버스 시간표>

마산포, 어도 시간표 <20번>

	종점	사강 터미널 출발	경유지	종점 출발
1	마산포	06 : 40	은진화학, 중송리, 마산초교, 마산2리	07 : 00
2	어도마을	07 : 25	은진화학, 중송리, 마산초교, 마산2리, 고포1리	어도동내 7 : 45 마산포 7 : 50
3	마산포	08 : 30	은진화학, 중송리, 마산초교, 마산2리	08 : 50
4	마산포	09 : 30	"	09 : 50
5	마산포	10 : 30	"	10 : 50
6	펜션	11 : 20	은진화학, 중송리, 마산초교, 마산2리, 고포1리, 어도동내	펜션 11 : 45 마산포 11 : 50
7	펜션	12 : 40	"	펜션 1 : 05 마산포 1 : 10
8	어도마을	1 : 35	은진화학, 중송리, 마산초교, 마산2리, 고포1리	어도동내 2 : 00 마산포 2 : 05
9	어도마을	2 : 30	"	어도동내 2 : 55 마산포 3 : 00
10	마산포	3 : 30	은진화학, 중송리, 마산초교, 마산2리	3 : 50
11	마산포	4 : 30	"	4 : 50
12	어도마을	5 : 30	은진화학, 중송리, 마산초교, 마산2리, 고포1리	어도동내 7 : 45 마산포 7 : 50
13	마산포	6 : 30	은진화학, 중송리, 마산초교, 마산2리	6 : 50
14	마산포	7 : 30	"	7 : 50
15	마산포	8 : 20	"	8 : 40

지화2리 시간표 <공영 1,2,3번>

	사강 터미널 출발	경유지	종점(지화2리 마을회관) 출발
1	07 : 50	은진화학, 중송리, 지화1리	08 : 00
2	09 : 40	"	09 : 55
3	11 : 30	"	11 : 45
4	1 : 00	"	1 : 15
5	3 : 40	"	3 : 55
6	5 : 10	"	5 : 25
7	7 : 40	"	7 : 55

형도 시간표 <공영 4번>

	사강 터미널 출발	경유지	형도 종점 출발
1	06 : 55	사강3리, 천등3리(새말), 독지리 종점	07 : 15
2	11 : 50	"	12 : 20
3	5 : 20	"	5 : 50

+ 참고 (경유지 시간표)

독지리(형도 경유지) 시간표 <마을20번, 공영4번>

	사강 터미널 출발	경유지	종점 출발
1	07 : 40	사강3리, 독지1리, 독지2리	07 : 55
2	10 : 10	"	10 : 25
3	12 : 10	"	12 : 25
4	2 : 10	"	2 : 25
5	4 : 10	"	4 : 25
6	6 : 30	"	6 : 45
7	7 : 30	"	7 : 50

지화1리(지화2리 경유지) 시간표 <공영3번>

	사강 터미널 출발	경유지	종점 출발
1	07 : 00	은진화학, 중송리, 마산리	07 : 20
2	11 : 40	"	12 : 00
3	1 : 40	"	2 : 00
4	7 : 00	"	7 : 20

*유의사항

같은 번호이지만 다른 종점의 버스가 많습니다. 승차 전 종점 확인하고 타세요.

마을버스가 작습니다. (봉고차 크기)

→ 짝 차게 타서 마을 분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나눠서 타세요.

→ 짐은 최대한 작게 줄이시고 부피가 큰 캐리어 등은 자제 합니다.

→ 불가피하게 많은 인원이 이동하게 될 시 마을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 기사님과 탑승 주민 분들에게 인사 잘 하시길

버스카드 충전해 오세요.

*사강 콜택시 번호

031-355-0684

031-355-1834

택시비 비쌉니다.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 이용 자제 하세요.

<시화호 연혁>

1985년 8월 29일 경제기획원, 시화지구 개발 우선 추진 계획 확정.

1985년 10월 11일~1986년 4월 8일 시화지구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1987년 4월 29일 시화지구 개발 사업 기공식 거행.

1993년 12월 23일 시화지구 1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1994년 1월 24일 시화지구 2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1995년 봄 시화지구, 소금 등 갯벌 퇴적물이 바람에 날림, 포도나무 피해 발생.

1996년 겨울-봄 시화지구, 포도나무 냉해, 영지버섯과 느타리버섯 피해 발생.

1996년 5월 22일 마산포 포도작목반, 대통령·장관·등에 진정서 발송, 언론에 연락.

1996년 5월 31일~6월 17일 마산포 포도작목반 등, 수자원공사 특수지역 사업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 수자원공사와 협의서 작성

1996년 6월 2일 환경부, 시화담수호 수질 개선 대책 회의(방류 결정)

1996년 6월 20일 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시화호의 저수량 3억3천만 톤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8천1백만 톤을 방류하기로 결정. 환경 단체 등, 인근 해역이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1996년 6월 24일 환경 단체의 선상 시위로 시화호 물 방류 계획 무산.

1996년 6월 29일, 30일 수자원공사, 시화호 방류. 환경부의 목계 하에 날치기 방류를 했다는 여론이 비등.

1996년 7월 5일 시화호 수질 개선 대책 발표. 2001년까지 총 4천9백93억 원 투입하여 하수처리장 3개소와 환배수로 건설 예정.

1996년 7월 16일 수자원공사, 홍수 대책으로 시화호 방류를 시도, 주민 및 환경 단체 회원의 저지로 방류 실패. 17일에 주민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여 방류를 강행.

1996년 7월 30일 수자원공사, 경기 지역의 집중 호우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인근 주민과 환경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차례에 걸쳐 시화호의 물 7천50만 톤 방류.

1996년 8월 14일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 박문숙 위원, 시화호 앞바다와 대부도, 선재도 일대 갯벌의 굴과 조개류가 모두 폐사했다고 주장.

1996년 8월 16일 시화호에서 길이 10cm 가량의 망둥이와 새우 등 수십 만 마리 떼죽음.
17일에는 갈매기와 오리도 죽은 채로 발견-죽은 물고기를 먹고 죽은 것으로 추정.

1996년 10월 4일 해양수산부, 오염된 회생 불능인 시화호를 항만으로 대체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 중임을 발표.

1997년 7월 7일 환경부, 국회 제출 자료에서 시화호 수질 개선 대책을 1년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되었음을 인정.

1997년 9월 안산시 본오동, 화성군 비봉면 일대의 시화호 상류지역 31만3천6백여평에 갈대 등 수생식물을 심어 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반월.동화천 습지 조성 및 조경공사' 착공.

1998년 1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화담수호사업을 경부고속철, 새만금간척사업과 함께 3대 부실 사업으로 규정하고 전면 조사 착수.

<책 이후>

1998년 12월 28일 시화호 농업 용수 공급 공식 포기.

1999년 2월 22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연구소, 시화방조제 일부 구간에 조력발전소 설치 검토 계획 발표.

1999년 4월 30일 시화호 간석지에서 공룡알 추정 화석 무더기 발견.

1999년 5월 25일 안산, 화성, 시흥 지역 시민단체 20여 개 '시화호 간석지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 - 시화호 자연생태공원 조성 논의.

1999년 8월 시화호 간석지 개발 계획을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흥시 이견.(수자원공사 측은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시흥시는 친수관광지 조성 주장)

1999년 9월 29일 환경부, 국회 제출 자료에서 시화호 수질이 방조제 공사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발표.

1999년 11월 5일 인천연안유자망협회, '시화호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보상 촉구대회' 열고 피해 배상 요구.

2001년 2월 11일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등 시화호 담수화 계획 완전 포기 결정.

2001년 5월 9일 경기도, 시화호에 조력발전소 건설 검토.

2001년 5월 10일 한국전력, 시화호에 송전탑 건설 허가, 시민단체 반발.

2001년 7월 9일 해양수산부,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종합관리계획' 발표 - 생태공원 조성, 조력발전소 설치 포함.

2001년 8월 23일 건설교통부, 시화호 북측 간석지 317만 평을 2011년까지 첨단벤처 제조시설용지로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 발표.

2002년 5월 14일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개장.

2003년 1월 10일 수자원공사, 시화호 조력발전소 2004년 1월 건설 공사 계획 발표.

2004년 9월 시화호 관리위원회,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개선계획 확정(사업비 2,071억원 증액)

2006년 6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화MTV개발면적 280만평으로 합의.

2006년 7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시민단체 중 일부 탈퇴 'MTV개발반대대책위' 구성.

2007년 8월 건교부, 시화 MTV 개발사업 기공식.

2007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유니버설 테마파크 리조트 건설 투자 양해각서 체결.

2008년 6월 시화MTV 개발사업 전체면적 실시계획 승인.

2009년 3월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고시.

2009년 6월 반월특수지역 추가 고시(지정)및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고시.

2010년 3월 송산그린시티 실시계획 승인 신청.

2010년 8월 시화MTV 국가산업단지 지정.

2010년 12월 시화호 조력발전소 충수 개시.

2011년 12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